



# 메가 공무원 이유진 교수 2023 국가직 9급 국어 해설

現) 메가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서경대학교 공공인력자원학부 교수

박문각 공무원 국어 대표 교수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형술,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오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출강

기타)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저자

법률저널 PSAT 언어논리 칼럼 연재

KBS안국어능력시험 유형서 저자



이유진 우월한 국어



우월한 국어 이유진 카페

문 1. '해양 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할 것.
- 설의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우리의 관심만이 다시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갔다가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이 되어 해산물을 섭취하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줄이는 것이 바다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길입니다.
- ③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
- ④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 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도 교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 ★ 정답: ③ - 독해(작문) - 조건 표현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에서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는 의인법을 사용한 표현과,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양심'이라는 관념을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다'고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에서 비유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

### ★ 오답 해설:

① '바다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다'는 의인법을 활용한 표현과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라고 은유법을 활용한 표현을 통해 비유적 표현이 드러난다. 하지만 제시문에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설의적 표현도 활용되지 않았다. '우리의 관심만이 다시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는 해양 오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일 뿐,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나타낸 것 아니다.

②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서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에서 설의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④ '~ 인간도 교통받게 되지 않을까요?'에서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는 '바다'가 '쓰레기 무덤'이 된다는 것이므로, 은유법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이다. 하지만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제시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에 제시된 방법은 생활 속 실천 방법이 아닌, 정부가 실천해야 할 방법이다.

문 2.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 팀장: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 대리: 전 반대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임 대리: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우려되긴 하네요.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 ①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고 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 ③ 임 대리는 발언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여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 주고 있다.
- ④ 임 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화법) - 말하기 내용**  
 백 팀장은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유를 밝히며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다'는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 오답해설:**  
 ② 고 대리는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다'고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③ 임 대리는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고 생각해요'라고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 주고 있다.  
 ④ 임 대리는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의문문을 사용하여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의문문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 3. 관용 표현 ㉠~㉣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 **홍역을** 치렀다.
-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 **잔뼈가 굵은** 분이십니다.
-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밀려 ㉢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 그분은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물리학자이다.

- ① ㉠: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 ② ㉡: 오랫동안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한
- ③ ㉢: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④ ㉣: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는

**☆ 정답: ③ - 어휘한자 - 관용 표현**  
 ㉢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경우'를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송곳 끝도 세울 수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벼룩 꿰어앉을 땅도 없다, 송곳 모로 박을 곳도 없다, 송곳 세울 틈[자리]도 없다.  
**☆ 오답해설:**  
 ① ㉠ 홍역을 치르다: 몹시 앓을 먹거나 어려움을 겪다.  
 ② ㉡ 잔뼈가 굵다: 오랜 기간 일정한 곳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하다.  
 ④ ㉣ 어깨를 나란히 하다:  
 「1」 나란히 서거나 나란히 서서 걷다.  
 「2」 서로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다.  
 「3」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다. ≒ 어깨를 같이하다.

문 4. 다음 글에서 (가) ~ (다)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가) 기업들은 고객이 관측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 왔다.  
 (나)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를 한 것에서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다)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는 알지 못했다.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고객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중요한 경영 수단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다) - (나) - (가)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배열**  
 지문의 도입부를 통해 '빅데이터'가 중심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 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나)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그 사례로 페이스북 광고를 들고 있다. 따라서 (나)의 앞에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해결한 '궁금증과 답답함'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라는 전환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접속어 뒤에,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내용이 있다. 제시된 내용 중 '기업들의 그런 노력'에 대응될 만한 내용은 (가)의 '마케팅 조사'가 유일하므로, (다)는 (가) 뒤에 와야 한다. 한편, 기업들의 마케팅 조사가 지닌 아쉬운 점, 가령 '광고비가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은 (나)의 '그런 상황'에 해당하므로, (다)는 (나) 앞에 위치해야 한다. → 선지 ①, ③, ④ 탈락  
 따라서 '(가)-(나)-(다)'의 순서대로 배열해야 한다. (나)는 기업들이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내용인데, 이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고객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과 이어진다.

문 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무진(霧津)엔 명산물이 .....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水深)이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 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깐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오륙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러저러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점 소리가 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엔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에서 -

- ①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 ②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 ③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 ④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현대 산문 내용 이해**  
 ‘무진에는 명산물이 별로 없다’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무진’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산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개’는 ‘나’가 ‘무진’의 명산물로 여기고 있을 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이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항구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요?’라는 질문에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水深)이 얕다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 ‘무진’이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②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과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통해 ‘무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무진에는 명산물이 ‘별게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라는 것을 통해 ‘무진’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김승옥, <무진기행>**  
 • 해제: 1960년대 4.19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질게 깔린 허무 의식과 회의감을 그려낸 소설이다. 서울에서 제약 회사 종역으로 승진을 앞둔 ‘나’가 휴가를 얻어 무진에서 지낸 사촌 동안의 일을 그렸다. 여기서 ‘나’는 서울로 표상되는 일상의 공간과 무진으로 표상되는 일탈의 공간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처음에 ‘나’는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진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하인숙이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된다. ‘나’는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서울에서 아내가 보낸 전보를 받고 현실로 복귀한다. 결국 ‘나’는 무진에서 자아 정체성의 회복 가능성을 발견하지만, 현실로 복귀하는 순간에 무진에서의 체험을 부정한다.  
 • 주제: 산업화 시대의 자아 정체성 탐색  
 • 구성  
 • 발단: 전무 승진을 앞둔 ‘나’는 아내의 권유로 무진으로 향함.  
 • 전개: 무진에 와서 후배 박과 동창 조, 하인숙을 만남.  
 • 위기: 하인숙이 무진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나에게 부탁하여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함.

- 절정: 다음날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나’는 끝내 말하지 않음.
- 결말: 아내로부터 온 전보를 받고 과거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진을 떠남.

문 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외국 여행 다녀온 사람의 입을 막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특히 그것이 그 사람의 첫 외국 여행이었다면, 입 막기는 포기하고 미주알고주알 늘어놓는 여행 경험을 들어 주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다.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면, 그런 수다로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① 刻舟求劍                      ② 捲土重來  
 ③ 臥薪嘗膽                      ④ 針小棒大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 어휘한자 - 성어**  
 지문에서 외국 여행을 다녀온 ‘그 사람’은 미주알고주알 여행 경험을 늘어놓는다. 문맥상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를 하는 등의 수다를 하는 ‘그 사람’은 별것 아닌 사실을 크게 불리어 떠벌리는 수다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針小棒大(침소봉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針 바늘 침, 小 작을 소, 棒 막대 봉, 大 클 대

**★ 오답해설:**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刻 새길 각, 舟 배 주, 求 구할 구, 劍 칼 검  
 ② 권토중래(捲土重來):  
 「1」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움을 이르는 말.  
 「2」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捲 거둘 권, 土 흙 토, 重 무거울 중, 來 올 래  
 ③ 와신상담(臥薪嘗膽): 불편한 설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臥 누울 와, 薪 쉼薪, 嘗 맛볼 상, 膽 쓸개 담

문 7.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이 못 오던가 무슴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쓰고 성안에 담 쓰고 담 안  
 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노코 뒤주 안에 케를 노코 케 안  
 에 너를 결박(結縛)하여 너코 쌍(雙)비목 외결쇠에 용(龍)거  
 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증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가  
 혼 들이 서른 날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

- ①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날짜 수를 대조하여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네’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고전 운문 형식 이해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어찌 못 오느냐 무슨 일로 못 오느냐)’에서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오지 않는 ‘너(임)’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흔 들’이 서른 날이여니 날 보러 올 하루 업스라(한 달이 서른 날이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는 한 달이 서른 날이나 되는데 자신을 보러 올 하루가 없을 수 있다고 하며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나타낸 부분으로, 이 부분을 통해 날짜 수를 대조하거나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③ ‘성을 쓰고 성안에 담을 쓰고 담 안에란 ~ 케를 노코 케 안에(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 케짜를 놓고 케짜 안에)’에서 ‘성’, ‘담’, ‘집’, ‘뒤주’, ‘케’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였다. 이를 통해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추측하고 있을 뿐, 화자의 감정 기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화자는 일관성 있게 ‘너(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④ 중장에서 ‘너(임)’가 화자를 찾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공간을 단계적으로 좁혀나가며 축소(성→담→집→뒤주→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너(임)’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 작품 해설: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 해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해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초장에서 임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중장에서는 연쇄법과 과장법을 통해서 임이 오지 못하는 까닭을 묻고 있다. 화자가 나름대로 추측한 이유는 모두 그리운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임이 결국 오지 않자, 중장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임을 보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해학 과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

•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 구성

- 초장: 임이 오지 않는 까닭에 대한 의문
- 중장: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
- 종장: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현대어 풀이]

어찌 못 오느냐 무슨 일로 못 오느냐,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케짜를 놓고 케짜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묵 외걸새에 용거북 자물쇠로 깊이깊이 잠갔더니 네 어찌 그리 안 오느냐  
한 달이 서른 날이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문 8.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이다.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음성 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영·유아기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 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 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 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 데에 (나) 의미한다.

- ① (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
- ② (가): 낮은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나):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음
- ③ (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나):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음
- ④ (가): 낮은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지문은 크게 발음 능력(둘째 문단)과 필기 능력(셋째 문단)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 둘째 문단에서는 발음 능력을 다루고 있다. 발음 능력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 습득되며, 그 결과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자동화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어와 달리 외국어 음성에 맞춰 음성 기관이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가)에 들어갈 말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가 된다. → 선지 ②, ④ 탈락

(나) 셋째 문단에서는 필기 능력을 다루고 있다. 필기를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것은, 필기에도 어느 정도 무의식적인 면이 개입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말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이 된다. → 선지 ②, ③ 탈락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문 9. ㉠~㉢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헤인 씨에게 ㉠ 무정타 말하지 마세요.
- 재아에게는 ㉡ 섭섭치 않게 사례해 주자.
- 규정에 따라 딱 세 명만 ㉢ 선발토록 했다.
- ㉣ 생각컨대 그의 보고서는 공정하지 못했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 정답: ②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 준말**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르면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이때 ‘하’ 중 ‘ㅏ’가 줄 적과 ‘하’가 아주 줄 적의 차이는 ‘-하다’ 접사와 결합하는지, 그리고 ‘-하다’ 앞의 어근의 마지막 소리가 울림 소리인지 안울림 소리인지이다.

㉠ ‘무정하다’와 ㉢ ‘선발하도록’은 어근 ‘무정’과 ‘선발’이 접사 ‘-하다’와 결합하고 어근의 마지막 소리가 울림 소리이므로 ‘무정타’, ‘선발토록’으로 줄여 쓰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해설:**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2에 따르면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섭섭하다’와 ‘생각하다’는 ‘-하다’ 앞에 오는 어근의 마지막 소리가 안울림 소리이므로 ‘하’가 아주 줄 적에 해당한다.

㉡ 섭섭치(×) → 섭섭지(○)

㉣ 생각컨대(×) → 생각건대(○)

**한글 맞춤법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혼하다	혼타
무능하다	무능타	부지런하다	부지런타
아니하다	아니타	감탄하게	감탄케
개미하지	개미치	실망하게	실망케
달성하게	달성케	무심하지	무심치
당(當)하지	당치	분발하도록	분발토록
허송하지	허송치	실천하도록	실천토록
추진하도록	추진토록	결근하고자	결근코자
달성하고자	달성코자	청각건대	청건대
사임하고자	사임코자	회상하건대	회상건대

붙임 1. ‘ㅎ’이 어간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치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넉넉찮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못찮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섭섭찮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깨끗찮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익숙찮다)
감감하지 않다	감감지 않다(감감찮다)	답답하지 않다	답답지 않다(답답찮다)
익숙하지 못하다	익숙지 못하다	-	-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문 10. ㉠~㉣의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정보다 지연되긴 했으나 열 시쯤에는 마에불에 ㉠ 도착할 수가 있었다. 맑은 날씨에 빛나는 햇살이 환히 비취 ㉡ 불상들은 불그레 물 들어 있었다. 만일 신비로운 ㉢ 경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지 모르겠다. 꼭 보고 싶다는 숙원이 이루어진 기쁨에 가슴이 벅차 왔다. 아마 잊을 수 없는 ㉣ 추억의 한 토막으로 남을 것 같다.

- ① ㉠: 到着                      ② ㉡: 佛像
- ③ ㉢: 境地                      ④ ㉣: 記憶

**★ 정답: ④ - 어휘한자 - 한자어 표기**

㉡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을 의미하는 ‘추억’은 ‘追憶’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추억(追憶):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  
追 쫓을 추,憶 생각할 억  
記 기록할 기

**★ 오답해설:**

① ㉠ 도착(到着): 목적한 곳에 다다름.  
到 이를 도, 着 붙을 착

② ㉡ 불상(佛像): 『불교』 부처의 형상을 표현한 상. 나무·돌·쇠·흙 따위로 만든, 부처의 소상(塑像)이나 화상(畫像)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부처, 불체  
佛 부처 불, 像 모양 상

③ ㉢ 경지(境地):  
「1」 일정한 경계 안의 땅.  
「2」 학문, 예술, 인품 따위에서 일정한 특성과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범주나 부분.  
「3」 몸이나 마음, 기술 따위가 어떤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  
境 지경 경, 地 땅 지

문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 ① 인간의 정신 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 ③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④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지문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과 생각은 프레임(어떤 맥락이나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임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진술이 성립되려면 프레임은 지각과 사고의 확장에 방해가 되는, 유동성이 없는 개념이어야 하지만 지문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지문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맥락과 가정을 프레임이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 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지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것'이기에, 인간이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프레임은 인간이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지문에 따르면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문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조종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간으로 직접 통제한다. 조종간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한다.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간 대신 사이드스틱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지만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이다.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테유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베테유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를 설계함으로써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든 것이다.

- ①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 ②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 ③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조종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 ④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조종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조종한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둘째 문단에 따르면 보잉은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베테유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베테유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것은 맞으나, 보잉이 인간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라고 설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따라서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자동조종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다.
- ④ 첫째 문단에 따르면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조종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따라서 보잉의 조종사 역시 자동조종시스템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두 감정을 야기한 원인을 따져 보면 두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하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둘 다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 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 ②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 ③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포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 ④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사례 추론**

지문에 따르면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 야기되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에 의해 야기된다. 또한 공포는 '나 자신이 위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불안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기에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가깝다. 따라서 불안감에 비해 공포감이 더 크다.
- ③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에 의해 야기된 걱정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에, 공포감이 아닌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 ④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경험이 객관적으로 실재했고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을 걱정하게 되기 때문에, 공포감과 동시에 불안감도 크다.

문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학 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천문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周轉圓)을 따라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한 일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 ① 과학 혁명 이전 시기에는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 ②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 ③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 ④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였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첫째 문단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주전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주전원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천동설로 자신의 관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 오답 해설:**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과학 혁명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천문 분야에서도 그의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두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한 이론이며, 둘째 문단에 따르면 지동설은 천체의 중심에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한 이론이다.  
 ④ 둘째 문단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행성들의 운동, 즉 행성들의 공전을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즉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한 것이다.

문 15.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저기 보이는 게 암염소인가, 수염소인가?
- ② 오늘 윗층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신대요.
- ③ 봄에는 여기저기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 ④ 그는 수업을 마치면 으레 친구들과 운동을 한다.

**★ 정답: ④ - 어문 규정 - 표준어 규정**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혹은 '틀림없이 언제나'를 의미하는 부사 '으레'는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쓴 단어이다.  
 으레: 「1」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2」 틀림없이 언제나

**★ 오답 해설:**  
 ① 수염소(×) → 수염소(○):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지만, '염소'는 '숫-'으로 쓴다.  
 ② 윗층(×) → 위층(○) (표준어규정 제11항): 거센소리와 된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웃'은 거센소리이다.  
 ③ 아지랑이(×) → 아지랑이(○):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9항 붙임1에 따라 '아지랑이'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 접두사 '수-'와 '숫-'(표준어규정 제7항)**  
 • 접두사 '수-'을 취하는 단어: 수양, 수염소, 수취  
 • 접두사 '수-' 뒤에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단어: 수캐,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 수태지, 수탕나귀, 수키와, 수톨찌귀, 수컷

문 16.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난독(難讀)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精讀'이다. '精讀'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正讀'과 ㉠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 정독(精讀)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 '빨리 읽기'인 속독(速讀)이 가능해진다.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즉 ㉢ 정속독(正速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뒤는지 확실히 읽고 빨리 이해한다. 자연스레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으므로 시간이 여유롭다. ㉣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① ㉠을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로 수정한다.
- ② ㉡을 '정독(正讀)'으로 수정한다.
- ③ ㉢을 '정속독(精速讀)'으로 수정한다.
- ④ ㉣을 '속독이 빠진 정독'으로 수정한다.

**★ 정답: ③ - 독해(작문) - 고쳐쓰기 + 독해(비문학) - 문맥 추론**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정교한 독서'라는 뜻의 정독은 한자로 '精讀'이라고 하였고, '빨리 읽기'라는 뜻의 속독은 한자로 '速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를 뜻하는 정속독은 '精速讀'이라고 써야 한다.

**★ 오답 해설:**  
 ① '정교한 독서'를 뜻하는 '精讀'과 '바른 독서'를 뜻하는 '正讀'은 둘 다 '정독'이라고 읽는다. 따라서 '㉠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이므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이와 같은 ㉡ 정독의 결과로~'라고 하였으므로 ㉡의 '정독'은 앞에서 제시된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라는 질문에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의 '정독'은 '정교한 독서'를 뜻하는 '精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독(正讀)'이라고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은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지문의 첫 문장에서는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④의 '속독이 빠진 정독'은 난독의 일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지문대로 '정독이 빠진 속독'이어야 ㉣이 난독의 일종이라는 뒤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문 17.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막바지 퇴약별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천지(天地)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들의 소리에  
멍청히 빨려 들게 하구나.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

- ①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 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현대 운문 내용+형식 이해**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고요해진 상황을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하고 표현하였다. 이는 매미 울음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정적: 고요하여 괴괴함)를 '쟁쟁쟁'이라며 시끄러운 소리처럼 표현한 것이므로, '반어법'이 아니라 '역설법'이 사용된 것이다.

- 역설법: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를 짜 맞추어 의미를 전달하거나 비논리적인 표현을 쓰는 등의 의도된 표현상의 오류.
- 반어법: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수사법.

**☆ 오답 해설:**  
①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으로 올려놓았던 매미 울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자연 현상을 '청각적 이미지(한창 매미 울음)', '시각적 이미지(퇴약별, 소나기, 구름, 하늘)', '공감각적 이미지(그들의 소리)'와 같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청각적 이미지(한창 매미 울음)'와 '시각적 이미지(퇴약별, 소나기, 구름, 하늘)'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사랑은 소나기처럼 습하게 다가와 몸과 마음을 적신다는 것을 통해 소나기의 시적 의미(열정적인 사랑의 속성)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나기가 그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이 펼쳐진다는 것은 잔잔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작품 해설: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 해제: 이 시는 매미 울음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유추에 의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매미 울음소리는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으로 올려놓고는 맹렬히 울다가 이내 사라지는데, 사랑 또한 한여름

소나기처럼 습하게 다가와 몸과 마음을 적서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와 공통점이 있다. 화자는 매미 울음이라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사랑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랑의 소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또한 사랑이 떠난 뒤의 상태를 '맑은 구름'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판단을 유보한 채 독자 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 주제: 열정적인 사랑이 끝난 뒤의 고요함
- 구성
  - 1연: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으로 올려놓던 매미 울음이 갑자기 사라짐.
  - 2연: 열정적인 사랑이 끝난 뒤의 고요함.

문 18.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다.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패로 나뉘어 전쟁에 참여했다. 둘째는 '비극의 시대'이다.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다. 비극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쳐 전달하는 존재로 바뀐다. 셋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에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사이에 어떤 통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세계가 되었다.

- ①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 ②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 ③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 ④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지문에 따르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다. 반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 즉 『오디세이아』에서의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더 높은 것이다.

**☆ 오답 해설:**  
① 그리스 세계는 '서사시의 시대'에서 '비극의 시대'로, 이후 '철학의 시대'로 변화하였으며,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철학의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계몽사상이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지문에 따르면 '철학의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에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던 시기인데, 플라톤은 이러한 '철학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데아가 '신탁이 사라진 시대'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첫째 문장에 따르면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를 구분했다. 즉 각기 다른 기준이 아닌 신과 인간이 얼마나 결합되어 있느냐는 동일한 기준을 통해 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몽유록(夢遊錄)은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라는 뜻으로,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꿈을 꾸 인물이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와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한다.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을 엿볼 뿐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16~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시기의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은 몽유자의 역할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 ①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몽유록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 ②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④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한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몽유자가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몽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하며, 이 참여자형 몽유록은 16~17세기에 주로 창작되었다.  
**★ 오답 해설:**  
 ① 지문에 따르면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몽유자가 꿈속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혹은 방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지문에 따르면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으며, 이 시기의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지문에 따르면 16~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은데, 이 몽유록에서는 꿈속 인물들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문 2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에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가상 세계에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해,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 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 ②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 ③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 ④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지문의 중간 부분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며,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지문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고용률이 향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라고 한다.  
 ④ 지문에 따르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은 메타버스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에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